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9  
우수콘텐츠  
KACCS

# 월간미술



201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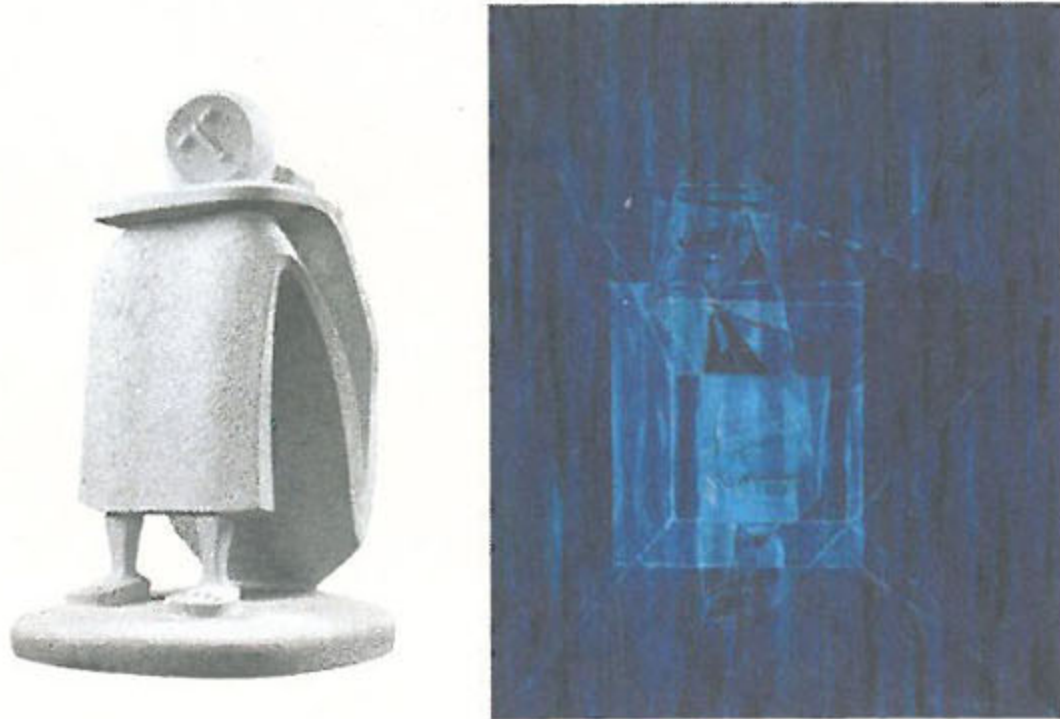
[www.monthlyart.com](http://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최종태> <황용엽>**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9.1~11.8, 7.25~10.11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립하고 새롭게 고찰하기 위한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 시각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거장들을 초대해 선보이는 자리로 9월에는 한국 현대조각계의 거장이자 우리나라 교회조각의 대표적 인물인 최종태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에 녹아있는 구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조각 영역뿐 아니라, 평면 작업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온 작가의 50여 년에 걸친 역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같은 시리즈의 전시로 황용엽의 개인전 <황용엽:인간의 길>이 진행되고 있다. '인간'을 화두삼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형상회화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상'을 현재의 시선과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선보이며 인생이라는 굴곡진 삶의 여정을 지나는 인간에 대한 작가만의 시선을 선보인다.

최종태 / 황용엽 작

**21C 하이퍼리얼리즘 : 숨 쉬다**

대전시립미술관 9.4~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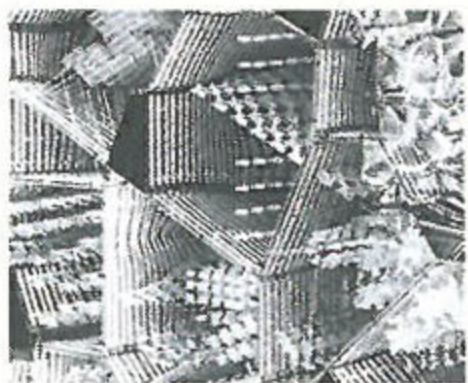


시각의 한계를 넘어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미술의 경향인 하이퍼리얼리즘을 통해 시대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하이퍼리얼리즘 중에서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의 부제인 '숨쉬다'를 대상의 차이로 나눠 '대중과 숨쉬다', '현실과 숨쉬다', '이상과 숨쉬다' 세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사회와 시대를 그려온 15명 작가의 작품 105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극사실주의의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관객들의 호기심과 경이감을 유발시키며 사회와 동떨어진 예술이 아닌 작품을 통해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다.

샘 징크스 작

**이불**

pkm갤러리 8.26~9.25



현대미술계를 선도하는 대표작가 이불이 5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연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파격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양면 거울과 LED 조명이 부착된 크리스털 구조물로 거대한 공간감을 이끌어낸다.

**우고 론디노네**

국제갤러리 9.1~10.11



탁월한 감각적 미학과 동시에 철학적인 작업 태도로 주목받아온 스위스 출신 작가 우고 론 디노네의 개인전.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영역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 형식과 미디어를 통해 시적인 심상의 대규모 신작 조각을 선보인다.

**불계공졸과 불각의 시공**

학교재갤러리 9.11~10.14



한국미술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에 그 조형성의 뿌리가 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추사 김정희의 서예 30여 점과 우성 김종영의 드로잉, 서예, 조각 30여 점을 통해 창조자의 발판을 마련한다.

김정희 작

**이승택**

갤러리 현대 9.16~10.18



전위적인 작업을 통해 한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로 불리는 이승택의 개인전 <이승택:드로잉>. 작가는 바람, 불, 물, 연기 등 시각화하기 어려운 '비물질'을 소재로 존재와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